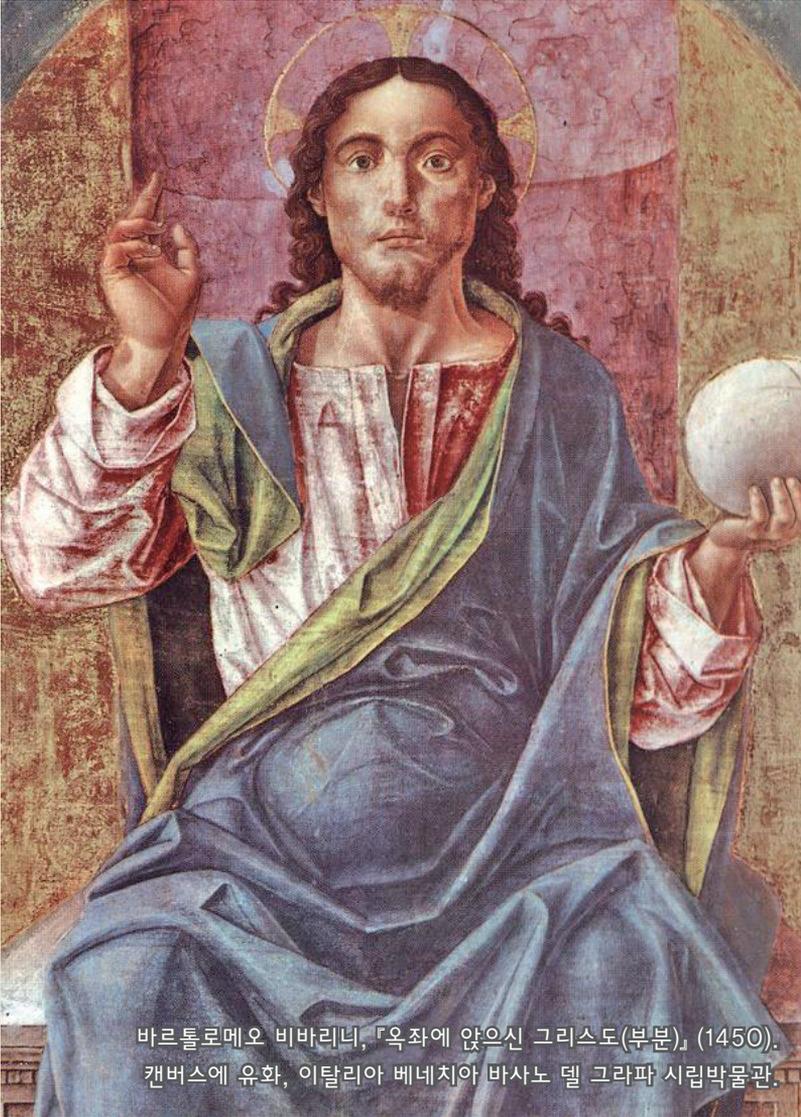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ubo.or.kr



바르톨로메오 비바리니, 「옥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부분)」 (1450). 캔버스에 유화, 이탈리아 베네치아 바사노 델 그라파 시립박물관.

† 오늘의 전례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8,33-37 참조)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십자가에서 나오듯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1독서** 다니 7,13-14 **제2독서** 묵시 1,5ㄱ-8 **복음** 요한 18,33-37.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행복한 삶을 향한 틀 바꾸기

박상용 요한 신부 | 성서사도직 담당

얼마 전에 어느 대학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당한 유머가 함께 섞인 상당히 세련된 말솜씨로 사람들을 휘어잡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데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누가 들어도 좋을 그런 강의였습니다. 강의 전체 가운데 비교적 시작 부분에서 ‘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복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거나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 ‘틀’을 바꾼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르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면 새 것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지만.

오늘부터 한 주간이 ‘성서 주간’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금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 분들은 성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슬쩍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워져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성경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온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틀’ 바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바꾸어야 합니까? 하느님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세상에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나라로, 이해하기보다 쉽게 판단하는 마음에서 부족함까지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시선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틀’을 바꾸라고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진 틀을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틀을 내 것으로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행복한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필문**

제31회 성서 주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31ㄱ)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사람과 자연을 돌보고 하느님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어둠속에 있는 이를 비추어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과소비, 자원 남용으로 환경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환경회칙인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 후렴구에서 제목을 취한 이 회칙의 부제는 “더불어 사는 집(지구)을 돌보는 데에 관하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같이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연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오늘의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교황님은 회칙에서 창세기 1장을 언급하시며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회칙 67항) 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정원이며, 인류가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정원에서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사는 일을 돌보라고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연을 원래대로 보전하고 또한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온전하게 되살릴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강조하신 생태학적 회심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난 거룩한 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된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비움으

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인간은 자기중심적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는 만큼 하느님의 정원을 공동의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말씀은 생태학적 회심과 자연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존의 지혜를 깨치며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성경은 읽을수록 생명의 샘이 되어 내 마음에 하느님 사랑이 고이고 차오르며 세상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과 손을 잡고 자신을 내어주는 만큼 우주와 하나 되고 동료 피조물로 대자연의 향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나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구 상처 낸 자연과의 복음적인 화해와 친교를 이루어갑시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공존의 지혜를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길이며 여기에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서사도직과 성경공부가 단순히 지식 추구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복음 선포가 되기 위해 ‘온전한 생태계’를 지켜가도록 힘을 모읍시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다’하신 세상에 인간과 자연과 모든 생명체들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공존하는 낙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지으신 공동의 집을 건강하게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태양의 찬가 후렴구)

교형 자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5년 11월 22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주교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소공동체!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 대리

“행복한 옆집 누나를 꿈꾸며” 이 말은 2009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에서 읽은 한국의 첫 주인인 이소연씨의 기고문 제목이다. 러시아에서 어느 외국 기자가 물었다. “대한민국 우주인으로서 너의 콘셉트는 무엇인가?”였다. 그때 그가 했던 대답은 “음... 나의 콘셉트는 옆집 여자”였다. 필자는 이소연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내가 놀란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사는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머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며 옆집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닫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도 옆집에 가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옆집의 누군가’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공동체는 성당이 아니라 집에서 해야 하는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소공동체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을 열게 해야 한다. 집 문을 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집을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집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집 문만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고 사는 사람들이다. 집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아무도 그 집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면 예수님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집은 죽은 집이다. 그 집에 아무리 좋고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집은 죽은 집이다. 자기 집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엉터리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루카 10,36)하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삶’을 주문하셨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하고 말씀하셨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에 젖어들면서 자기 집을 닫고 폐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웃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스스로 자기 집을 무덤으로 만들며 죽어가고 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냄새가 나는 살아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마저도 자기 집을 열지 않음으로서 죽은 신앙생활, 이웃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다. “이웃끼리 저녁 한 번 합시다.” 그랬더니 78가구 중 65명이 참가하여 저녁 내내 흐뭇하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우리도 마음의 문과 집 문을 열어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반 모임도 잘 되고 소공동체도 잘 되리라 믿는다. 그러면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음표로 승화시킨 신앙과 사랑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월 15일.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의 수용소 무대 앞으로 5천여 명의 전쟁 포로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4명의 음악가들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4중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지원병으로 참전했다가 이듬해 수용소 포로로 사로잡혔던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시간의 끝을 위한 사중주〉가 초연된 것입니다.

드뷔시 이후 프랑스가 배출한 최고의 음악가 올리비에 메시앙(1908~1992). 조율도 안된 고물 피아노를 구해 직접 연주까지 한 그는 훗날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초연을 회상하며 그 뒤로도 그토록 대단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무대와 관객을 보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세 이후 가장 많은 종교 음악을 작곡하며 ‘바흐 이래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

리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며 60년 동안 프랑스 파리 성트리니테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한 그는 매 주일 낮 미사 때마다 오르간 즉흥연주를 선보이며 성악곡은 물론 오르간곡, 피아노곡, 실내악곡, 교향곡 등 기악곡 전반에 걸친 중



교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작곡가로도 명성을 떨친 그의 음악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삶과 작품 전체에 짙게 깔려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가톨릭의 음악가입니다. 종교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나의 작품은 모두가 신앙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자 기도인 음악을 만들 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칼로**

금주의 성인

11월 22일	성녀 아피아(바오로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성녀 체칠리아(동정 순교자, 230년) 성 프라그마시오(주교, 오튀, 520년), 성 필레몬(바오로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11월 23일	성 골롬바노(설립자, 수도원장, 선교사, 보비오, 540-615년), 성 암필로키오(주교, 이코니움, 400년경) 성녀 루크레시아(동정 순교자, 메리다, 306년), 성 클레멘스 1세(교황, 교부, 순교자, 30-101년)
11월 24일	성녀 엔플레다(과부, 수녀, 휘트비, 700년), 성 크리스고노(순교자, 아퀼레이아, 304년) 성 프로타시오(주교, 밀라노, 352년), 성녀 플로라(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1년) 성 포르티아노(수도원장, 미란다, 533년)
11월 25일	성녀 가타리나(동정 순교자, 알렉산드리아, 310년경), 성 메르쿠리오(군인, 순교자, 250년경) 성녀 유쿰다(동정녀, 레지오 에밀리아, 466년)
11월 26일	성 레오나르도 카사누바(신부, 증거자, 저술가, 포르토 마우리치오, 1676-1751년) 성 바솔로(은수자, 베르지, 620년경), 성 시리치오(교황, 399년) 성 실베스테르 고졸리니(설립자, 수도원장, 1177-1267년), 성 콘라도(주교, 콘스탄츠, 975년)
11월 27일	성 비르질리오(주교, 잘츠부르크, 784년), 성 세쿰디노(주교, 던슬로글린, 375-447년) 성 야고보(순교자, 페르시아, 421년), 성 페르고(주교, 8세기경)
11월 28일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수녀, 환시자, 1806-1876년), 성 시메온(저술가, 1000년경)



■ 제21회 한일 주교 교류모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일본 요코하마 교구에서 열린 제21회 한일 주교 교류모임에 참석하였다.

■ 본당 총회장 및 평신도위원회 총회 연수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4일(토) 오후 4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본당 총회장 및 평신도위원회 총회 연수 파견미사를 봉헌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47주간, 2015. 11. 22~11. 28.>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도15-17장	18-20장	21-23장	24-26장	27-28장	로마-4장	5-8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로마서」

- 전하려는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이다.(1,1-17)
- “믿음을 통한 의화 사상”
 - ①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한 의화(義化) 과정을 거쳐 죄로 일그러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1,18-3,30)
 - ② 의화의 구체적 과정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이로 판정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3,21-4,25)
 - ③ 믿음으로 의화 된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고 종말론적 삶의 기쁨을 누린다.(5-8장)
 - ④ 구세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룬다.(9-11장)
 - ⑤ 여러 가지 구체적 권고(12-15장)
- 맺음말-안부와 축복의 인사 그리고 영광송(16장)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성경의 생활화를 위하여



⑥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 주간)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11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1월 25일(수) 14: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1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11월 25일(수) 10:00 성토마스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25일(수) 10:00 평화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25일(수) 19:00 성의여고경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28(토) 14:00
 장소: 관구본부(서강대 옆)
 주제: 봉사-사랑의 실천
 문의: 김우중 수사, (010)6245-1608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1.27(금)~29(일)
 장소: 가평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천호성지 1박 2일 영성 피정

기간: 12.5(토)~6(일)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집
 주제: 마음의 기도7
 지도: 안창호 신부(예수성심전교회)
 신청: (063)263-1004~5

교육 | 모집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 고전무용, 동화구연 2급, 필라테스, 오카리나성가, 회화, 가곡성가, 발성법, 수지침, 하모니카성가, 미

술심리상담사 2급, 문학창작, 왕초보 관광영어,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신청: 254-6115(성모당 내)

효성유치원 2016년 입학설명회

일시: 11.24(화) 10:15 입실
 장소: 효성유치원 대강당(칠곡)
 대상: 만 3~5세 유아를 위한 학부모
 문의: 313-1175 / (070)4137-6175

삼덕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25(수) 10:30
 대상: 2016학년도 유치원 입학희망자
 문의: 782-9380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일시: 수시 사전예약 가능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20~30대 미혼 여성
 문의: (010)2649-2045

가톨릭근로자회관 12월 영여성공부반 모집

개강: 12.1(화) / 월 3만 원
 창세기·마르코: 월, 수 10:10~12:00
 낮중급: 2코린토·신명기(화, 금 10:10)
 저녁: 신명기·2코린토(화, 목 19:10)
 지혜서: 목 10:10
 문의: (010)6506-3303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1.3(청소년 4주, 대학 8주 이상)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6차)

일시: 11.26(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요통·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인천교구 마리시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미소나라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대건신협과 함께하는
“바오로 사도”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 12박 13일
 출발일: 2016년 4월 25일
T. (053)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흥 미 희(안젤라)
 (주)성기여행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행복의료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희 자(루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투류타운 뒤편(시내배출가능)

하나 염색약
 전문점/취급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허가제품
(주)한아코스메틱
 053)741-7912 | 010-3526-6539
 대표 권 영 자(마리아)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26일(목)은
(故) 이상호(베드로) 신부
선종 4주기입니다.

11월 27일(금)은
(故)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
선종 2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LD와 함께하는 4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12.5(토) 13:30~6(일) 16:30
장소: 한티피정의집 / 5만 원
마감: 12.2(수), cafe.daum.net/biap
대구은행: 508-11-836412-0(한상숙)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Mary&You(성모님과 함께) 묵주전시회

아기예수님을 기다리며 초대합니다
기간: 11.29(일)~12.10(목)
장소: 동성로 성바로로딸서원 2층
문의: 425-5185/5373

교육 | 모집

2016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6(월)~2016.2.12(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교구청 사제관 직원 채용

대상: 신앙생활에 모범인 여교우
영양실: 만 35세~55세
청소: 만 35세~60세
문의: (010)9206-3224

해은선목학원 중등 교사기간제교사 채용

원서접수: 11.23(월)~27(금)
선목학원: 660-5161
<http://www.dgsunmok.or.kr>
해은학원: 660-5164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대건인쇄출판사 경력사원(여) 채용

자격: IBM 편집디자이너, 이력서 지
참 방문접수 / 마감: 11.25(수) 17:00
문의: 252-6737, ttagun@daum.net

파티마홀 요양원 어르신 모집, 직원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 받은 여성 어르신

채용: 간호사, 요양보호사(북구 사수동)
문의: 324-1188 / (010)8595-1186

약목성당 청국장 판매

목적: 오르간 및 성당엠프 교체
100% 국산콩으로 직접 제조
가격: 두메 청국장 700g에 1만 원
4개 이상 택배비 무료
문의: (054)974-50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군중후원회 성탄위문품 신청

성탄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5(수) /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포함)
※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2016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6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차 순번추첨: 11.23(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2차 순번추첨: 11.23(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
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나나)
☎ (053)255-9077
010-9447-5193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로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안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안끼약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대구은행
본점
코리야 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분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주)분도 축복을저하는사람들
분도서당/주당소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